

〈책중일록〉에 나타나는 자기-서사의 수사학*

윤인선**

〈차 례〉

1. 들어가며
2. '비극적' 자기-서사로서 〈책중일록〉에 나타나는 담화적 에토스
3. 〈책중일록〉에 나타나는 파토스의 형성 양상
4. 마치며

〈국문초록〉

본고는 심하전투에 대한 패전 경험을 기록한 이민환의 〈책중일록〉에 나타나는 '비극적' 자기-서사의 수사학에 관해 연구한다. 〈책중일록〉에 나타나는 자기-서사는 단순히 개인의 삶을 서술하는 자서전의 특징을 넘어서, 전란을 미주한 공동체의 모습과 사적 경험을 직조시키는 양상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이민환은 심하전투에 대한 글쓰기를 통해 독자들에게 전란 상황이나 강화교섭에 대한 사실적인 기록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패배와 생환에 대한 정당성을 설득하기 위한 수사적 전략을 보인다.

이민환은 〈책중일록〉에서 심하전투에 대한 패전 경험에 대한 글쓰기를 비극의 형식으로 구성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패전 후 살아 돌아온 조선 사회의 이방인이라는 선결 에토스를 넘어서, 비극적인 전란 상황으로 인해 자유의지가 좌절된 '어찌할 수 없는 존재'라는 담화적 에토스를 형상화한다. 또한 자신이 경험하고 관찰한 전란이 주는 고난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독자들에게 파토스의 형성을 통한 정서적 몰입을 유도한다. 더 나아가 생환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강화교섭에 관한 서사를 후금과 조선군 공동체 사이의 논리에 기반한 문답 형식의 대화로 구성하여 독자들에게

* 본고는 2024년도 한국고전연구학회 제126차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국립한밭대학교 인문교양학부 조교수

포로로서 경험하게 되는 힘의 우위가 일으키는 상황에 대한 파토스를 일으킨다. 이민환은 <책중일록>에서 독자들에게 ‘비극에 관한 에토스’와 ‘연민을 일으키는 파토스’에 바탕을 둔 정서적 협력을 유발하는 자기-서사 쓰기 양상을 보인다. 이를 통해 자신의 생환에 대한 변호를 위한 기억을 재현하고 화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사화된 경험을 설득하기 위한 수사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다.

주제어 <책중일록>, 패전 경험 글쓰기, 비극, 자기-서사 쓰기, 담화적 에토스, 파토스

1. 들어가며

본고는 <책중일록>에 나타나는 이민환의 심하전투에 대한 패전 경험 글쓰기에 관해 연구한다. 이를 위해 연대기적으로 개인의 삶을 서술하는 자서전이 아닌 개인이 관찰한 공동체의 모습과 사적 경험을 직조시키며 나타나는 완결된 텍스트성을 지니는 자기-서사로서 <책중일록>의 글쓰기 양상을 살펴보고, 그 안에 나타나는 수사학적 문제에 관해 논의한다. 이를 통해 본고는 심하전투로 인해 조선이라는 국가 공동체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던 이민환이 독자들에게 패전과 생환에 대한 정당성을 설득하기 위해 <책중일록>에서 사용했던 글쓰기 전략에 관해 살펴볼 것이다.

심하전투는 17세기 초반 세력을 확장하여 여진족을 통일한 누르하치의 후금과 당시 동아시아의 패권을 가지고 있던 명나라 사이에 벌어진 전란이다. 이 전란에서 명나라가 패함으로써, 이후 후금은 만주 지역의 패권을 장악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당시 조선은 명나라의 요청으로 1619년 2월 도원수 강홍립을 비롯하여 13,000명의 병력을 파병하였다. 외국의 요청에 의한 파병은 조선의 역사에서 이례적인 경우이지만,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의 도움을 받은 조선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다. 하지만 심하전투에서의 패배로 인해 조선은 명나라 중심의 무너져가는 동아시아의 이념적 국제 질서와 새로운 강자인 후금 사이의 현실적 상황 속에서 외교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되었다.

〈책중일록〉은 도원수 강홍립의 종사관으로 심하전투에 참여한 이민환(李民寬, 1573~1649)의 피로 체험 기록이다. 〈책중일록〉에는 심하전투 파병에 대해 찬반으로 갈렸던 조선의 상황, 준비되지 않은 파병, 전란의 참상, 항복의 원인과 과정을 비롯한 전란 중 미주한 다양한 사건들과 그에 대한 이민환의 대응 양상이 서술된다. 이를 통해 이민환은 자신이 경험한 심하전투의 맥락과 당시 상황을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것과 동시에 이를 통해 항복의 책임과 살아 돌아온 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대응해 나간다.

〈책중일록〉에 대한 선행 연구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전개되었다. 그동안 〈책중일록〉에 대한 대표적인 선행 연구는 역사학 분야에서 이민환의 삶과 전란의 상황, 동아시아 질서에 대한 것¹⁾과 문학 분야에서 전란에서 살아 돌아온 자라는 맥락에서 인물의 형상화나 서술 방식 등에 대한 것²⁾이 주를 이루었다. 다시 말해, 〈책중일록〉에 대한 선행 연구는 이민환에 의해 기록된 심하전투에 대한 사료적 가치를 활용하는 양상과 그것을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 이민환을 비롯한 전란에서 패배 후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형상화 및 서사적 대응 양상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는 〈책중일록〉에 나타나는 패전 경험 서사가 전란에 대한 사실적 기

1) 안세현, 「자암 이민환의 〈책중일록〉과 〈건주문건록〉에 대하여」, 『동방한문학』 34, 동방한문학회, 2008, 111~143쪽.

장재호, 「자암 이민환의 생애와 저술」, 『동방한문학』 34, 동방한문학회, 2008, 7~40쪽.

2) 권혁래, 「심하전투 전쟁포로 강홍립의 두 형상-〈책중일록〉과 “강로전”의 대비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68, 열상고전학회, 2019, 41~75쪽.

박양리, 「강홍립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 양상 연구」, 『한국문학논총』 58, 한국문학회, 2011, 87~114쪽.

이서희, 「〈책중일록〉에 재현된 기억과 조선후기의 전승」, 『어문논총』 77, 한국문학언어학회, 2018, 63~85쪽.

록이며, 동시에 이민환의 글쓰기 행위가 특정한 의미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고는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책중일록>에 나타나는 패전 경험에 대한 글쓰기의 수사학적 문제에 주목한다. <책중일록>은 심하전투 현장에 참여했던 당사자인 이민환의 경험 글쓰기로 당시 전란 상황에 대한 사실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고난과 패전의 과정을 비롯한 조선군에 대한 기록 속에서 서술자로서 이민환의 자기-서사를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책중일록>을 통해 전란의 관찰자가 아닌 ‘참여자’로서 이민환은 자신이 관찰한 심하전투에서 패배한 조선군이라는 ‘특정 공동체의 서사’를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의 서사’와 직조시키며 서술한다. 이를 통해 전란에 참여했던 개인의 경험뿐만 아니라, 이민환이 바라보는 심하전투에 참여한 조선군이라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함께 보여준다. 따라서 <책중일록>은 전란을 마주한 개인의 사적인 기록을 넘어서 공동체의 정체성과 문화를 담은 ‘글쓰기’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글쓰기는 사회적 공동체와 그 구성원으로서의 서술자 자신을 동시에 인식하고 성찰하며 자아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탐색하는 <책중일록>의 자기-서사 쓰기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이민환이 <책중일록>에서 심하전투의 패전 경험 서술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조선군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를 어떻게 소통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글쓰기 전략, 즉 수사학적 문제에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2. ‘비극적’ 자기-서사로서 <책중일록>에 나타나는 담화적 에토스

심하전투 당시 강홍립의 종사관이었던 이민환은 <책중일록>에서 1618

년 4월 누르하치가 무순을 함락한 때부터 1620년 7월 압록강을 건너 평안도 만포에 도착할 때까지의 경험을 시간 순으로 서술한다. 다만 그는 해당 기간의 모든 경험이 아닌,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기록한다. 또한 〈책중일록〉은 비록 전란 현장과 상황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지만, 원래의 초본을 사후에 정리하여 편집한 일종의 역사서와 같은 성격을 보인다.³⁾ 이때 〈책중일록〉은 심하전투를 둘러싼 쟁점인 전투 상황, 패전의 원인, 항복의 경위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구성을 보인다.

날짜	중심 내용
1618년 4월~1619년 2월 18일	심하전투의 시대적 배경과 출병 준비 상황
1619년 2월 19일~1619년 3월 2일	심하전투를 위한 행군과 고난(추위와 군량 문제)
1619년 3월 2일~1619년 3월 3일	첫 전투의 승리와 고난(군량 문제 등)
1619년 3월 4일~1619년 3월 5일	패전과 강화교섭의 시작
1619년 3월 6일~1619년 3월 23일	항복식과 조선군 포로의 압송
1619년 3월 28일~1620년 3월 20일	수용소 생활과 강화교섭
1620년 4월 24일~1620년 7월 17일	귀환

〈책중일록〉에는 이민환이 경험한 심하전투의 다양한 사건이 단순히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된 경험을 아우를 수 있는 ‘중심 내용’이 존재한다. 〈책중일록〉은 이민환이 경험한 전란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심하전투의 시대적 배경과 출병 상황이 먼저 서술된다.⁴⁾ 이후 조선군에게 불리했던 전투 상황과 그들이 경험한 추위나 식량 등의 고난을 통해 패전의 원인을, 강화교섭의 과정을 통해 항복의 과정과 경위가 나타난다. 그리고 패전에 대한 별다른 논평 없이 귀환 사건과 고난 경험을 서술하면 〈책중일록〉을 마무리한

3) 중세사료강독회 역, 「〈책중일록〉에 대하여」, 『책중일록』, 서해문집, 2014, 21쪽.

4) 萬曆戊午,四月, 奴賊陷撫順, 七月, 陷清河. 天朝有征討之舉, 徵兵於我國.(만력 무오년 4월, 오랑캐가 무순을 함락하고 7월에 청하를 함락하였다)

다.5) 이를 통해 <책중일록>은 심하전투의 패전을 기록한 역사서로서의 성격을 넘어서, 패전과 화의에 대한 변호를 위해 이민환의 경험이 재구성된 기억을 서사화한다.6)

<책중일록>은 심하전투의 모든 사건이 아닌, 조선군이 경험했던 추위나 식량 부족, 명나라 군대의 판단 착오로 인한 고난과 함께 강화교섭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담화를 중심으로 경험을 ‘선택적으로’ 재구성한다. 이를 위해 <책중일록>은 심하전투의 시대적 배경과 출병 상황을 ‘발단’으로, 별다른 논평이 없는 귀환 사건을 ‘결말’로 설정하고, 고난에 대한 서술과 강화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담화를 ‘전개’로 구성됨으로써 연대기적 기록을 완결된 텍스트성을 지니는 ‘서사’로 전환하려 한다.7)

헤이든 화이트(H. White)는 연대기적으로 존재하는 무정형의 사건에 발단-전개-결말과 같은 ‘서사 유형’이 부여되는 과정을 플롯화(plotment)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연대기적인 역사적 사건에 대해 부여된 서사의 형식이 서술자의 의도에 따라 로망스, 비극, 희극, 풍자와 같은 특징을 지닐 수 있다고 말한다. <책중일록>의 경우 이민환이 경험한 연대기적 사건의 연속을 ‘서사의 형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헤이든 화이트가 논의한 ‘비극’의 특징을 형상화한다. 헤이든 화이트에 따르면 비극은 주인공이나 영웅이 자신의 환경과 대항하여 투쟁하고 운명과 맞서 싸우지만, 그 결과에 있어서 주인공이나 영웅의 투쟁 실패, 죽음, 패배 등이 나타난다. 또한

5) 十七日, 行五十里, 過皇城 渡鴨綠, 到滿浦.[當初被陷軍卒, 幾至四千名, 再次屠殺可五六百名. 今聞前後走回者, 二千七百餘名, 聞走回人之說, 則所經山谷間, 我餓殍者, 不可勝數. 云云.](17일, 50리를 가서 황성을 지니고 압록강을 건너 만포에 도착하였다. 당초 포로로 잡힌 군졸이 거의 사천여 명이었는데 두 차례에 걸쳐 살육된 사람이 거의 5~600명이나 되었다. 지금 들으니 전후로 도망쳐 돌아간 자가 2,700여 명이라고 한다. 도망쳐 온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 지나온 산과 계곡에 굶어 죽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체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고 한다.]

6) 이서희(2018), 앞의 논문, 82쪽.

7) 양재혁, 「헤이든 화이트의 서사이론」,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21쪽.

비극은 결말에 있어서 인간이 지배적인 세계에 복종하는 방식으로 갈등이 사라지는 모습이 그려진다.⁸⁾ 따라서 비극에서 주인공의 대결은 그가 지닌 필연적 한계로 인해 패배로 이어진다. 하지만 비극적 주인공의 도전과 대결은 멈추지 않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인공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때문이다. 독자들은 이러한 비극적 주인공의 패배를 극단적 파멸 속에서도 인간 정신의 불굴성과 위대함으로 바라본다.⁹⁾ 이러한 서사의 전개 과정을 통해 독자들은 비극적 주인공의 삶에 대해 심리적 연민을 보내고, 그들의 패배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책중일록〉은 심하전투에 대한 패전 경험을 공동체의 상황 속에서 비극적으로 서사화한다. 이를 통해 이민환 개인이 아닌, 심하전투에 참여한 조선군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이민환은 주어진 환경, 세계 질서에 대한 투쟁의 실패를 보여주는 전란 경험을 다양하게 서술한다. 이는 먼저 전란으로 인한 고난을 서술하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이민환이 서술하는 경험은 개인의 고난이 아닌 공동체로서 조선군이 처한 상황을 매개로 한다. 즉 그는 ‘나’에 대한 서사의 형식 속에서 공동체로서 조선군의 모습을 서술한다.

나는 원수에게 “전군이 먹지 못한지가 지금 이미 여러 날이 되었는데, 군량을 관리하는 군관이 뒤늦게 나타나서는 ‘마땅히 도착할 것’이라며 속이는 짓이 이와 같으니, 그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참수한 후 각 군영에 머리를 돌려 굶주린 군졸의 마음을 위로하십시오.”라고 했다. 원수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지금은 일단 용서할 것이니, 속히 돌아가 군량을 운반해오라.”하고 타일렀다.¹⁰⁾

8) H. White, *Metahistory: the historical imagination in nineteenth-century Europ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14, pp.7~9.

9) 김영희, 「비극적 구전서사의 연행과 ‘여성의 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27쪽 참조.

심하전투 당시 조선군은 식량 부족, 추위와 같은 다양한 고난을 경험한다. 이민환은 조선군이 처한 고난에 대해 사실적인 관찰의 결과로만 서술하지 않는다. 공동체의 고난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서술자로서 자신의 흔적을 개입시킨다. 그는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와 서한에 관한 서술을 통해 도원수나 명나라 장군에게 식량 부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강조한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매번 다양한 이유로 거절당한다. 즉 <책중일록>에 나타나는 고난의 상황은 이민환의 관찰자적 시선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패전을 경험한 조선군에 관한 ‘공동체의 서사’를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이민환의 서사’와 직조시키며 나타난다. 이를 통해 <책중일록>에는 이민환이 군량의 부족이라는 자신이 처한 세계가 주는 고난의 환경에 대해 끊임 없이 투쟁하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좌절하는 모습이 서술된다. 이를 통해 <책중일록>은 비극적 주인공으로 이민환을 형상화한다.

이는 패전과 이후 항복의 과정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나는 “저도 역시 알고 있습니다.”하고는 여러 장수들과 함께 진을 순행하면서 재차 사졸들을 격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면 살아날 길을 얻을 것이라는 뜻으로 효유했지만, 백에 하나도 응하는 자가 없다. (중략) 며칠이나 굶은 군졸들은 초조함이 극에 달했는데, 도망가려 해도 퇴로가 끊겼고 싸우려고 해도 사기가 무너져 어찌할 수가 없었다.¹¹⁾

위 인용 역시 이민환의 관찰자적 시선을 넘어서, 이민환 자신의 서사를

10) 生言于元帥曰; “三軍不食, 今已屢日, 而管糧軍官, 緩緩來現, 說稱當到, 面瞞如此, 罪不可恕. 請臬示各營, 以慰飢卒之心.” 元帥不聽, 諭以“今姑饒貸, 速令回去, 運糧而來.”

11) 生答曰; “生亦知之矣,” 遂與諸將巡行陣上, 至於再次, 激勵士卒, 諭以決一死戰, 可得生道之意, 則百無一應者. (중략) 屢日饑卒, 焦渴兼劇, 欲走則歸路斷絕, 欲戰則士心崩潰, 無可奈何.

조선군이 처한 패전 상황을 매개로 서술한 부분이다. 패전의 상황 속에서도 이민환은 사졸들과 끝까지 싸우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이미 군량의 부족으로 인해 며칠이나 굶은 군졸들은 그의 독려에 따르지 않는다. 즉 비극적 주인공으로서 이민환의 자유의지는 군량의 부족과 같은 주어진 환경에 의해 좌절하는 모습으로 서술된다.

또한 아래의 인용과 같이 전란에서 패배한 이후에도 이민환은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도, 더 나아가 자기 의지대로 자결을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서술된다.

나는 이때 자전하려 하였으나, 수하 사람들에게 저지당하여 결행하지 못하다가 이윽고 들으니 “적장이 두 원수를 대우하는 데 자못 경의를 다하고 꺾박하거나 모욕하는 일은 전혀 없었고 심지어 하늘을 가리키면서 맹세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혹시 화약을 맺고 나오는 길에 만약 협박하고 모욕한다면 그때 죽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마침내 꼭 참고 갔다.¹²⁾

위 인용에서 이민환은 항복의 과정에서 자결하려다 주변의 만류로 인해 포기했던 자신의 경험을 서술한다. 하지만 이 과정을 “적장이 두 원수에게 경의를 다하였다.”는 당시 조선군의 상황에 대한 모습과 함께 기록한다. 이처럼 <책중일록>에서 이민환은 전란의 상황을 온전히 개인의 서사로도, 동시에 공동체만의 것으로도 서술하지 않는다. 그는 전란 경험을 공동체 상황에 대한 관찰자적 시선을 넘어서 자신의 서사를 직조시킨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민환 자신의 모습을 주어진 환경, 세계 질서에 대해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투쟁하지만, 궁극적으로 실패하는 비극적 주인공의 모습으로 형상화한다.

12) 生於此時欲自盡，而爲手下所持，不得遽決，仍聞“賊將之待兩帥，頗有敬意，絕無逼辱之事，至於指天爲誓。”則庶或有約成出送之路，若終脅辱，則死亦未晚，遂隱忍而行。

여기에서 더 나아가 <책중일록> 서사 구성의 결말에서는 주어진 세계에 저항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그려진다.

50리를 가서 황성을 지나고 압록강을 건너 만포에 도착했다.(당초 포로로 잡힌 군졸이 거의 4,000여 명이었는데, 두 차례에 걸쳐 살육된 사람이 500~600명이나 되었다. 지금 들으니 전후로 도망쳐 돌아간 자가 2,700여 명이라고 한다. 도망쳐온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 지나온 산과 계곡에 굶어 죽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체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고 한다.)¹³⁾

위 인용은 <책중일록>의 마지막 부분인 1620년 7월 17일의 기록이다. 앞선 인용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민환은 심하전투에 대한 패배라는 주어진 환경과 세계 질서에 끝까지 맞서 싸우려 한다. 그는 전란에서 군사들을 두려워서 끝까지 싸우려 하며, 항복의 과정에서도 화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결을 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계속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민환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펼쳐나가려 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한다. 하지만 <책중일록>의 마지막에는 수많은 사상자를 만들어 낸 전란의 참상을 보여주면서 만포에 도착하여 조선으로 귀환하는 모습을 담담하게 서술한다. 다시 말해, 많은 피해와 고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민환이 주어진 환경, 세계 질서로 편입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이민환은 자기-서사 쓰기의 맥락 속에서 공동체와 개인의 경험을 직조시키며 심하전투에 대한 패전을 비극의 형식으로 서사화한다.

<책중일록>에서 ‘비극’의 형식으로 패전 경험을 서사화하는 서술자에 대한 담화적 에토스를 형상화한다.¹⁴⁾ 서술자는 자신과 공동체에 대한 경험

13) 十七日, 行五十里, 過皇城 渡鴨綠, 到滿浦.[當初被陷軍卒, 幾至四千名, 再次屠殺可五六百名. 今聞前後走回者, 二千七百餘名, 聞走回人之說, 則所經山谷間, 我餓殍者, 不可勝數. 云云.]

14) 수사학에서는 자신의 말의 효율성에 기여하기 위해 연설가(서술자)가 담화 안에 자신

을 함께 직조하여 서술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둘러싼 ‘외부’인 사회적 문화적 현상을 관찰하는 한편, 동시에 문화적 해석을 시도하면서 ‘내부’인 자아를 성찰한다.¹⁵⁾ 이민환의 〈책중일록〉에 나타나는 자기-서사 쓰기 역시 공동체 일원으로서 자신이 경험하고 관찰한 심하전투에 관한 외부적인 서술이면서 동시에, 사건을 마주하고 기록하는 ‘자신’에 대한 담화적 에토스를 형상화하는 과정이다. 이때 〈책중일록〉은 조선군의 심하전투에 대한 경험을 관찰자적인 시선으로 서술하면서 동시에 이 과정에 자신의 서사를 직조한다. 그리고 이때 공동체의 전란 경험을 서술하면서 나타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전란을 경험한 이민환 자신에 대한 담화적 에토스를 형상화한다.

마침 나가는 부원수를 만났는데 내가 말하길 “이렇게 대사를 끝내려는 것입니까?”라고 하니, 부원수가 말하길 “병법에는 기이한 방도가 있는 법인데, 종사관이 뭘 알겠소?”라고 하였다. 나는 너무 비분강개하여 큰 소리로 “공께서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하고 즉시 절벽에서 투신하려 했지만, 둘째 조카와 노복이 좌우를 감싸 안았고, 차고 있던 도검도 빼앗겨 버려 실행하지 못했다.¹⁶⁾

위 인용은 이민환이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자결을 하려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서술이다. 이를 통해 전란의 패배라는 어찌

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이를 담화적 에토스라고 한다. 이는 대중이 화자(서술자)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미지만 선결 에토스와는 다른 것으로, 담화 속에서 서술자의 언어를 통해 구축되는 것이다.

루스 아모시, 장인봉 옮김, 『담화 속의 논증』, 동문선, 2003, 89쪽, 102쪽.

15) Ellis, C. & Bochner, “Autoethnography, personal narrative, and reflexivity”, In: Denzin, N. & Lincoln, Y.,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2000, p.739.

16) 適值副帥出去, 生日曰: “如此而了當大事乎?” 副帥曰: “兵有奇道, 從事何知乎?” 生不勝憤慨, 大言曰: “公其任意爲之?” 卽欲自裁墮崖, 次, 姪子及奴, 左右抱持, 所佩刀劍, 亦被奪取, 不得遽決.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자살로 투쟁하려는 시도의 실패를 비극으로 서사화한다. 그리고 비극적 서사 구성을 통해 ‘전란이라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실현할 수 없는 존재’로서의 이민환에 대한 담화적 에토스를 형상화한다.

이러한 모습은 이민환 개인뿐만 아니라, 심하전투의 조선군의 모습에 대한 서술에서도 나타난다.

우 수비가 흥기를 가지고 원수의 앞에 와서 찢던 칼을 빼고는 소리쳐 말하기를 “유 제독이 조선 군대가 뒤떨어져 있다고 장차 나의 목을 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교 유격의 표문을 꺼내 보였다. 거기에는 “조선군에 군량이 없지 않는데, 머물러 관망하면서 두려워하고 위축된 것이 매우 심하다.”고 쓰여 있었다. (중략) [유 제독이 양 경략에게 미움을 받는지라 기간을 어기는 것으로 죄를 짓게 될까 두려워하였는데, 매번 조선군이 뒤떨어져서 쉽게 진하지 못한다고 닦했다. 장차 우리 군으로 죄를 돌려 자신의 죄를 모면하려고 한 것이다. 이에 원수는 부득이 굶주린 군졸을 재촉하여 위태롭고 험한 곳으로 깊이 들어갔다.]¹⁷⁾

명나라의 요청에 의해 심하전투에 출병한 조선은 군량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제대로 전투를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인용에서는 명나라의 유 제독과 양 경략의 갈등으로 인해 어찌 할 수 없이 군졸들을 위태로운 상황으로 내몰아야 하는 강홍립의 모습을 보여 준다. 다시 말해, 강홍립을 비롯한 장수들의 자유의지가 아닌 전란이라는 주어진 상황으로 인해 어찌 할 수 없이 군졸을 전란의 상황으로 내몰아야 하는 조선군 공동체가 처한 비극적 모습을 서술한다. 이러한 서술을 통해

17) 于守備以紅旗，來到元帥前，拔所佩刀，呼曰：“提督以朝鮮軍落後，將斬我。”仍出示喬遊擊票文，有曰：“朝鮮軍非無糧也，逗留觀望，畏縮太甚。”云。(중략) [蓋提督見忤於經略，懼以失期見罪，每以我軍落後未易進兵爲言。其勢將歸罪於我軍，以爲自免之地，故元帥不得已催督飢卒，深入險阻，]

이민환은 ‘전란이라는 상황 속에서 자유의지를 실현할 수 없는 공동체’에 속한 존재로서의 담화적 에토스를 형상화한다.

이민환은 심하전투에서 돌아온 후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금과 요동 문제에 관한 전문가라는 사실을 다양한 상소문과 시무책을 통해 보여주었다.¹⁸⁾ 하지만 패전 이후 살아 돌아왔다는 이유로 매국항적(賣國降賊)이라고 낙인이 찍혀 사간원의 탄핵을 받는 등¹⁹⁾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이방인으로서의 선결 에토스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민환의 심하전투에 대한 글쓰기는 자신의 생환에 대한 변호를 위한 기억을 재현하고 화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²⁰⁾ 〈책중일록〉의 독자들에게 생환의 정당성을 설득하기 위한 글쓰기 과정에서 매국항적(賣國降賊)이라는 선결 에토스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서술자로서 이민환은 자신의 말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담화 안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²¹⁾ 이를 위해 이민환은 〈책중일록〉에 나타나는 패전 경험을 비극으로 서사화하고, 그 안에서 전란의 상황 속에서 자유의지가 좌절된 ‘어찌할 수 없는 존재’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에 속한 존재로서의 담화적 에토스를 구축하는 글쓰기 전략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책중일록〉은 독자들에게 비극적 자기-서사의 맥락 속에서 끊임없는 패배 속에서도 주어진 세계(불리하고 불합리한 전란의 상황)와의 대결을 통해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는 주인공 이민환의 모습을 보여주는 수사학적 전략을 보인다. 이를 통해 이민환은 독자들에게 자신의 비극적 삶에 대한 심리적 연민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심하전투의 패배에 대해 이해시키고자 한다.

18) 장재호(2008), 앞의 논문, 9~15쪽.

19) 박경선, 「역주 책중일록」, 전남대학교 석사논문, 2015, 5쪽.

20) 이서희(2018), 앞의 논문, 66~74쪽.

21) 루스 아모시(2003), 앞의 책, 89쪽.

3. <책중일록>에 나타나는 파토스의 형성 양상

이민환은 <책중일록>의 서술을 통해 불리한·불합리한 세상에 끊임없이 도전하지만, 전란 상황 속에서 자유의지가 좌절된 비극적 존재로서의 담화적 에토스를 형상화한다. 그리고 <책중일록>은 이렇게 형성된 담화적 에토스를 지닌 서술자가 보여주는 고난에 대한 생생한 묘사를 통해 독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전란 상황에 대한 정서적 몰입을 통한 파토스를 유발시킨다.

눈이 내렸다. 삼영이 엄수령을 넘어 양마전에 도착했다.(앵아구에서 10여리) 눈이 개로 바람이 불었다. 추위가 매우 심하여 군졸 중에 얼어 죽는 자가 있었다.²²⁾

이두가 누르하치의 명으로 우리 일행을 꺾박하여 자편성으로 이주케 했다. 한밤 중에 출발하여 끌려가는 상황은 참혹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²³⁾

겨우 4~5리쯤 가서 절강 군사 수천 명이 산 위에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대개 전날 패배한 군사들이다. 오랑캐 기병 수백 기가 말을 달려 돌격하여 올라가니 절강 군사들은 무너졌고 순식간에 남김없이 참살되었다. 그 광경을 눈앞에서 보니, 참담함을 말로 다할 수 없었다.²⁴⁾

위 인용은 <책중일록>에 나타나는 전란의 참담함에 대해 서술한 내용의 일부이다. 이민환은 식량 부족이나 추운 날씨로 인해 조선군이 경험한

22) 雪. 三營踰滄水嶺, 到亮馬佃.[去鶯兒溝五十餘里.]雪晴, 風起. 寒冽殊甚, 卒有凍死者.

23) 阿斗以奴酋言逼一行, 往者片城, 夜半發行驅出之狀, 慘不忍言

24) 行纔四五里許, 見浙兵數千屯據山上, 蓋昨日潰卒也. 胡數百騎馳, 突而上, 浙兵崩潰, 須臾間廝殺無餘, 目觀之慘, 不可勝言. 所經僵屍如麻, 數十里不絕, 乃戰歿之地也.

고난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패전 상황에 대한 생생한 묘사를 통해, 그들이 처한 참담한 현실을 서술한다. 이민환은 이러한 서술을 통해 독자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전란에 정서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파토스를 유발시킨다.

이는 전란에 대해 관찰자적인 시선으로 서술한 부분뿐만 아니라, 포로수용소에서 조선군으로서 경험한 치욕스러운 상황에 대한 서술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누루하치가 술과 음식을 보내왔다. 사람을 시켜 말하기를 “내가 듣건대 조선 관원은 반드시 기생을 가까이한다고 하니, 지금 홀로 둘 수 없어 유녀를 보내겠는데, 이는 혼인에 견줄 바가 아니니 바라건대 꺼리지 마라.”라고 했다.²⁵⁾

누루하치가 대해를 시켜 수용소에 와서 이르기를 “중국 여자들의 음악이 들을 만하니 지금 보내려고 한다.”라고 했다. 원수가 답하기를, “우리가 화친을 맺는 일로 여기에 와서 오랫동안 구류되어 있는데, 이제 약조가 이미 정해졌으니 다시 의심할 것이 없다. 그런데 단지 여악을 들으라고 말하니,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²⁶⁾

위 두 인용은 이민환을 포함한 조선군 공동체가 포로수용소에서 경험한 치욕스러운 상황에 대한 서술이다. 누루하치는 “술과 음식” 혹은 “음악” 등을 통해 마치 조선군에게 관대한 것처럼 말을 한다. 하지만 “조선 관원은 기생을 가까이 한다.” 혹은 “중국 여자들의 음악이 들을 만하다.”와 같은 언급을 통해 포로로 잡힌 장수들을 희롱한다. 이민환은 <책중일록>에서

25) 奴酋送酒饌, 使人言曰: “吾聞朝鮮官員, 必近女妓云. [蓋藩胡所言.] 令不可獨處, 欲以養漢的送去, 非如婚娶之此, 幸勿以為嫌.”

26) 奴酋令大海, 來到柵中, 謂曰: “漢女音樂可聽, 今欲送去”云. 元帥答曰: “俺等以約事至此, 久被拘留. 今則信約已定, 更無可疑, 而只以女樂之聽來言, 此何理也?”

이러한 치욕스러운 상황을 통해 심하전투의 포로 생활을 서술한다. 이를 통해 <책중일록>의 독자들은 조선군이 단순히 패전 이후 도망을 친 공동체라는 비판적인 시선이 아닌, 이민환을 비롯한 조선군이 경험한 패전의 고난에 정서적으로 몰입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이민환은 <책중일록>에서 패전 과정에서 경험한 고난이나 치욕스러운 상황을 서술하면서 독자들에게 정서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파토스를 형성하려 한다. 이를 통해 패전 이후 생환되었다는 당시 조선 사회의 비판적 시선을 넘어서려 한다. 이민환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강화교섭 당시에 후금과 주고받은 대화를 상세히 서술하면서 독자들에게 파토스를 유발시키려 한다. <책중일록>에 나타나는 강화교섭에 관한 서술은 독자들에게 패전에서 살아 돌아온 존재로서 이민환의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한 중요한 부분이다. 다시 말해, <책중일록>의 강화교섭 서사는 심하전투의 생환자들이 후금이 굴복한 것이 아니고, 화의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민환은 후금과 조선군의 강화교섭에 관한 서사를 논리에 기반한 문답 형식의 대화를 통해 보여준다. 이때 문답의 과정은 후금의 화의 요구 혹은 협박에 대한 조선군의 응답으로, 실질적으로는 심하전투의 패배 속에서 벌어지는 조선군의 생환을 위한 대응 양상의 모습을 보인다.

이두가 “이 서신은 어찌서 평안도 관찰사가 썼는가?”하고 물으니, 원수가 답하기를, “우리나라의 법규에는 예로부터 교린의 외교에서는 반드시 가까운 곳의 감사로 하여금 그 일을 주관하게 한다. 그러므로 지금 이 화해의 일도 반드시 평안도 감사가 주관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두가 다시 “우리나라의 후금이라는 국호를 어찌서 쓰지 않고 단지 건주라고만 칭했는가? 이것은 우리를 이웃나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자, 원수가 답하기를, “우리나라가 건주라고 칭한 것은 이전부터 익숙한 일로, 그렇기 때문에 건주라고 칭한 것 같다.”

(중략) 그것은 아마도 끝까지 국서가 아니라서 가볍게 여겼던 것이다.²⁷⁾

위 인용은 후금의 이두가 조선과의 강화교섭 과정에서 왕이 아닌 평안도 관찰사가 서신을 작성한 것과 후금이라는 국호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답 형식의 서술이다. 이민환은 후금이 문제 삼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조선의 정치적 상황이나 규범, 풍습 등을 통해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후금에 대한 논리적 설득은 결국 심하전투의 패배라는 상황 속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해, 강화교섭에 나타나는 후금과 조선의 문답 양상은 형식적으로는 논리를 통해 상대를 설득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실상은 심하전투의 패배로 인한 후금의 협박과 그것에 대한 조선군의 대응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두는 조선의 다양한 논리적 답변에 대해서도 “국서가 아니라 가볍게 여겼던”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강화교섭에 관한 서사는 〈책중일록〉의 독자들에게 상대(후금)에 대한 논리적 설득이 무의미해지는 상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로서의 생환을 위해 물음에 대한 답변을 통해 상대를 설득해야 하는 조선군의 상황이 상호작용하며 유발하는 파토스를 형성시킨다.

이러한 모습은 〈책중일록〉에 서술된 다른 강화교섭의 장면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두 원수가 답하기를 “우리는 너희와 본래 원수진 것이 없으므로 다시는 명나라의 군사를 돕지 않을 것이다. 다만 명나라 관원이 왕래하는 것 때문에 차관을

27) 阿斗曰; “此文書何以平安觀察使答之乎?” 答曰; “我國之規自來隣國之好, 必以近處監司主之. 如日本通好, 則慶尙監司主之. 故今此和事, 必平安監司主之矣.” 阿斗曰; “我國後金號, 何以不書, 而只稱建州乎? 是不以隣國待我也.” 答曰; “我國之稱建州者, 自前已熟, 想必以此而稱之. 以下文貴國二字看之, 則其不以隣國待之而然耶?” (중략) 蓋終始以非國書輕之也.

즉시 들여보내지 못할 따름이지, 어찌 얼음이 얼고 요동이 격파된 날을 기다려 화친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이겠는가?”라고 했다.²⁸⁾

대해가 누르하치의 문서를 가지고 와서 보였다. (그 글에서 말하기를 “칸이 이른다. 조선국 장수들은 모두 알고 있으라, 너희 국왕은 너희를 찾는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버렸는가? 너희 나라는 다시 명나라를 도울 것인가? 너희는 머물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빨리 돌아가고 싶은가?”하고 했다.) 원수가 바로 글을 써서 답하기를 “이번 출병은 부득이한 것이었다. 어찌 다시 명나라를 도울 까닭이 있겠는가. 우리나라가 허다한 장수들과 군사들을 어찌 끝내 버리겠는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야 인지상정인데, 꼭 그것을 물어야 하는가?”라고 했다.²⁹⁾

<책중일록>의 강화교섭에 관한 서사에서 후금은 조선군에게 줄곧 “우리(후금)와 명나라는 원한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한다. 하지만 너희(조선) 나라와는 본래 원한이 없는데 어찌서 우리와 전쟁을 하느냐.”는 논리를 전개한다. 심하 전투에 참여한 조선의 부당함에 대한 이러한 후금의 논리에 대해 조선군은 위 인용과 같이 대응한다. 즉 조선에게 “이번 출병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다시는 명나라를 돕지 않을 것이며, “어찌 얼음이 얼고 요동이 격파된 날을 기다려 화친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이겠는가?”라고 말하며, 후금과의 화친 역시 명나라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고 서술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야 인지상정인데, 꼭 그것을 물어야 하는가?”라는 대답을 통해 전란의 패배자로서의 서러움을 표현한다. 다시 말해, 위 인용에서 살펴볼 수 있는 강화교섭

28) 兩帥答曰; “我國與爾, 本無仇怨, 故更不助兵, 而只以唐官往來, 未即入送差人而已. 豈待氷合破遼之日而爲定和好乎?”

29) 大海持奴酋帖來示.[有曰; “汗諭朝鮮國將帥等知悉, 爾國王索爾乎? 抑棄爾乎? 爾國復助南朝否? 爾願留否? 願速回還否?”] 元帥即書帖以答曰; “今者出兵, 亦不得已, 豈有復助之理? 許多士, 我國豈終棄之乎? 回還之意, 人情所同, 何必問乎?”

에서 나타나는 후금과 조선의 문답은 후금의 협박에 대해 어찌할 수 없는 조선군이 순응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문답 양상이다. 이러한 모습은 아래 인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언가리와 대해 등이 누르하치의 명으로 와서 묻기를, “작년 7월 처음 차관이 되돌아갈 때 보낸 시선에 대해 지금까지도 답을 하지 않으면서 매번 명나라 관원을 핑계 대고 있다. 비록 명나라 관원이 왔다 하더라도, 어찌 능히 문호를 닫아걸고 도로를 막는가?”라고 했다. 원수가 말하기를 “명나라 관원이 와서 문호를 닫아걸지는 않겠지만, 일의 형평이 곤란하여 즉시 회답하지 못한 것이 다른 뜻은 없다.”라고 했다.³⁰⁾

이민환은 〈책중일록〉에서 강화교섭 부분을 서술하면서, 주로 후금과 주고받은 문답에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 그리고 이때 나타나는 강화교섭의 문답 양상은 항복과 명나라와의 관계에 대한 조선의 불명확한 태도에 대한 후금의 불만과 그것에 대한 조선군의 답변이다. 위 인용 역시 명나라를 핑계로 명확하게 항복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조선에 대한 후금의 질문과 이에 대해 “상황이 좋지 못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는 조선군의 대답이다. 포로로 잡혀있는 이민환을 비롯한 조선군은 조선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군 포로들은 후금의 질문에 대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를 갖추어 답변한다. 이러한 논리에 기반한 강화교섭의 문답은 〈책중일록〉의 독자들에게 심하전투의 패배자로서의 조선군이 경험해야 했던 서러움이 유발하는 연민의 정서에 대한 파토스를 형성시킨다. 즉 패전이라는 상황 속에서 어찌할 수 없이 대답을 해야만 하며, 아무리 논리적으로 대답하더라도 끊임없이 의심받

30) 彦加里·大海等以奴酋語來問曰：“去年七月初，差官回去時，所送文書至今不答，而每以唐官爲託，唐官雖來，豈能鎖閉門戶杜塞道路乎？”元帥曰：“唐官方來，雖不至鎖閉門戶，事體非便，未卽回答，固無他意也。”

는 상황에 처한 조선군의 모습을 통해 독자들에게 파토스를 유발시키는 것이다.

이민환은 <책중일록>을 통해 독자들에게 패전 이후 생환자로서 그들이 처한 고난의 상황에 몰입할 수 있게 하는 파토스를 일으키는 수사적 전략을 활용한다. 이를 위해 먼저 패전의 과정에서 경험한 고난이나 치욕스러운 상황을 서술하면서 독자들을 서사화된 경험에 정서적으로 몰입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이민환은 <책중일록>에서 강화교섭에 대해 대화의 형식을 통해 최대한 사실적으로 보이도록 당시 상황을 서술한다. 그리고 문답 형식의 대화를 후급의 질문에 대해 조선군의 논리적 대응과 패배자로서의 서러움에 바탕을 둔 대답으로 구성한다. 이를 통해 <책중일록>의 독자에게 논리적 대응이 무의미해지는, 힘의 우위에 의한 문답 과정이 일으키는 파토스를 형성시킨다. 다시 말해, <책중일록>에서는 고난 경험과 치욕스러운 상황에 대한 생생한 묘사와 더불어 강화교섭 상황에 대한 문답 구성을 통해 자기-서사 쓰기의 맥락에서 공동체의 현실에 대한 사실성의 확보와 더불어, 독자들에게 연민의 파토스를 일으키는 수사학적 전략을 보인다³¹⁾.

4. 마치며

지금까지 본고는 비극적 자기-서사 쓰기의 맥락에서 <책중일록>에 나타나는 수사학적 문제에 관해 살펴보았다. <책중일록>에 나타나는 자기-서사에 대한 수사학적 문제는 ‘누가 쓰는가’라는 자기-서사를 통한 서술자의 에토스, ‘누구(의 문화)를 쓰는가’라는 서술되는 경험이나 공동체, ‘누가 읽는가’라는 독자와의 참여적 관계 모색과 관련된다. 이때 ‘누가 쓰는가’의 측면에서 심하전투를 경험한 주체이자 서술자인 이민환의 담화적 에토스

31) 루스 아모시(2003), 앞의 책, 241쪽.

의 형상화 양상이 나타난다. 또한 ‘누구(의 문화)를 쓰는가’라는 측면에서 전란이 주는 고난과 치욕스러운 상황을 비롯하여 강화교섭을 통해 심하전투 패배 이후 생환자 공동체 경험의 서사화 양상이 나타난다. 이때 〈책중일록〉에서는 심하전투의 패전 경험을 비극적 서사 유형으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독자들에게 이민환의 이미지를 조선 사회의 이방인과 같은 선결 에토스가 아니라, 패전의 상황 속에서 자유의지가 좌절된 ‘어찌할 수 없는 존재’라는 담화적 에토스를 통해 형상화한다. 또한 전란이 주는 고난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독자들에게 정서적 몰입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 강화교섭에 관한 서사를 논리에 기반한 문답이 소용없는 상황으로 구성하여 독자들에게 힘의 우위가 일으키는 파토스를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책중일록〉은 전란에 대한 개인의 경험을 서술하는 자서전이지만, 동시에 그것을 서술자가 관찰한 공동체의 서사 속에 직조하여 형상화하는 특징을 지닌 ‘자기-서사 쓰기’의 모습을 보인다.

〈책중일록〉에 나타나는 이러한 글쓰기 전략은 궁극적으로 독자와의 참여적 관계를 모색하는 ‘누가 읽는가’라는 측면에서 비극적 서사 구성과 이민환에 대한 담화적 에토스, 그리고 고난에 대한 묘사와 강화교섭에서 나타나는 문답을 통해 형성되는 파토스의 상호작용에 기반한 설득의 전략을 보여준다. 즉 독자들에게 ‘비극적 주인공에 관한 몰입을 일으키는 에토스’와 ‘연민을 일으키는 파토스’에 바탕을 둔 정서적 협력을 유발하는 글쓰기를 통해 이민환은 〈책중일록〉에서 자신의 생환에 대한 변호를 위한 기억을 재현하고 화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설득하기 위한 수사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이민환, 「책중일록」, 『자암집』, 한국문집총간 82.

권혁래, 「심하전투 전쟁포로 강홍립의 두 형상-〈책중일록〉과 “강로전”의 대비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68, 열상고전학회, 2019, 41~75쪽.

김상봉, 『그리스 비극에 대한 편지』, 한길사, 2003, 1~397쪽.

김영희, 「비극적 구전서사의 연행과 ‘여성의 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1~524쪽.

루스 아모시, 장인봉 옮김, 『담화 속의 논증』, 동문선, 2003, 1~351쪽.

박경선, 「역주 책중일록」, 전남대학교 석사논문, 2015, 1~108쪽.

박양리, 「강홍립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 양상 연구」, 『한국문학논총』 58, 한국문학학회, 2011, 87~114쪽.

안병직, 「픽션으로서의 역사: 헤이든 화이트의 역사론」, 『인문논총』 51,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04, 35~75쪽.

안세현, 「자암 이민환의 <책중일록>과 <건주문건록>에 대하여」, 『동방한문학』 34, 동방한문학회, 2008, 111~143쪽.

양재혁, 「헤이든 화이트의 서사이론」,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1~105쪽.

이서희, 「<책중일록>에 재현된 기억과 조선후기의 전승」, 『어문논총』 77, 한국문학언어학, 2018, 63~85쪽.

장재호, 「자암 이민환의 생애와 저술」, 『동방한문학』 34, 동방한문학회, 2008, 7~40쪽.

중세사료강독회 역, 『책중일록』, 서해문집, 2014, 1~207쪽.

필립 뤼진, 윤진 역, 『자서전의 규약』, 문학과지성사, 1997, 1~424쪽.

Deborah Reed-Danahay, *Auto/ethnography: Rewriting the Self and the Social*, Oxford and New York : Berg, 1997, pp.1~277.

Ellis, C. & Bochner, “Autoethnography, personal narrative, and reflexivity”, In: Denzin, N. & Lincoln, Y.,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2000, pp.733~768.

H. White, *Metahistory: the historical imagination in nineteenth-century Europ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14, pp.1~448.

ABSTRACT

A Study on Rhetoric of self-narrative in *Chaekjungilrok*

Yoon, In-sun

This paper studies the rhetoric of 'tragic' self-narrative in Lee, Min-hwan's *Chaekjungilrok*, which narrates his experience of defeat in *Simha Battle*. Through his writing in *Chaekjungilrok*, The self-narrative writing aspect that appears in *Chaekjungilrok* goes beyond the characteristics of an autobiography that simply describes an individual's experiences, and shows the characteristic of weaving the narrative of the community observed by the individual with one's own private experiences. Lee, Min-hwan not only provides a realistic depiction of the war situation and peace negotiations but also employs rhetorical strategies to persuade readers of the legitimacy of defeat and survival.

Lee, Min-hwan structures his narrative of the *Simha Battle* as a tragedy in *Chaekjungilrok*. This approach transcends the initial ethos of being an outsider in post-war Joseon society, portraying a discursive ethos of an 'inescapable being' whose free will is thwarted amidst the chaos of war. In his work *Chaekjungilrok*, Lee, Min-hwan vividly depicts the hardships caused by the wars he experienced and observed. He goes further to narrate the peace negotiations through a dialogue-based approach, structured around logical questions and answers. This shows the pathos arising from the power dynamics encountered as a prisoner. Lee, Min-hwan uses this discursive ethos and pathos in *Chaekjungilrok* to persuade his readers. By eliciting an emotional collaboration based on 'the ethos of tragedy' and 'the pathos of compassion', he recreates memories to defend his survival and employs narrative strategies to justify the peace negotiations.

Key Words *Chaekjungilrok*, Writing about defeat experience, Tragedy, Self-narrative, Discursive ethos, Pathos

논문투고일: 2024.07.15.
심사완료일: 2024.08.05.
게재확정일: 2024.08.08.